

백수를 부끄러워 하는 자는 백수 자격이 없다

백수의 유형...

• 노동기회 박탈 혹은 원치않는 노동에 대한 혐오의 표현으로 비롯된 백수

• 많은 꿈을 꾸고, 이야기하는 어린시절의 백수

• 휴지기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백수

• 게으름뱅이와 몽상가



"밑으로 아득한 땅끝이 보인다. 아무런 생각없이 짓밟고 오르다보니 어느새가 이렇게 높은 곳에 내가 서 있다. '성공'이라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나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상쾌함을 더하고 있다. 이 곳에 조금 더 오래 머무를 수만 있다면, 이러한 간절한 바람이 내 마음 속에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나의 자리를 향해서 올라오는 녀석들의 무서운 질주가 내가 그럴수 없음을 더욱 실감케한다. 이제는 작별 인사를 할 시간도 없다. 이제는 내려가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더 이상 처참하고 더러운 꿈을 보지 않으려면... 이제는 밑바닥 내음이 그리워진다. 나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자유로운 나의 꿈의 시간 '백수'의 생활로. 이것으로 나의 인생이 '성공'이란 쾌락감을 영원히 못 느낄지도 모르지만...

"대통령이요!", "과학자요!", "야구선수요!"라고 수시로 변덕을 부리며 많은 꿈을 이야기하던 우리의 어린시절. 그러나 우리는 세월이 흘러 성년의 나이가 되면서 직업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다. 실현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수입도 짱짱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 하지만 그런 직업이 우리 모두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치열한 생존경쟁의 한복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린시절 '백수' 생활 속에서 소중히 꿈꿔왔던 '직업'이라는 하나의 의무행으로 전락시켜 버린다. 그 결과는 무엇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와 상상력의 충만으로 표현되어야 할 꿈이 직업이라고 하는 기존 사회의 역할분담 체계에 갇혀 사정되고 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고독스러운 기억은 자유로운 사고에서의 무한한 가능성들을 추상한 소유욕과 사회안정이라는 정제된 의식으로 대체함으로써 유년의 꿈과 희망을 직업 선택의 기회로 교묘하게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제된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회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이름을 달리하며 조금씩 변용되어온 '백수'의 힘일 것이다. 우리의 백수도는 하나의 이상점이며 지향점으로 우리 민족을 선도했고 화랑도, 풍류도, 선비도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의식도 현대사회로 이양함에 따라 점점 퇴색되어 갔고 '백수'의 의미가 게으름뱅이나 몽상가로 오도되었다.

현재 우리는 누가 언제 백수가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은 언제나 대량 해고와 물갈이를 통해 부적응자를 선별하여 백수로 만든다.

현대사회에서는 원하던 원하지 않은 누구나 '백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현대에 와서 오도

"백수정신은 백수들의 사회, 경제, 심리, 문화적 조건에 의해 그 기초가 마련되었지만 '게으름뱅이', '몽상가'의 모습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자기부정의 과정 속에서만 존재한다. 백수정신은 모든 사회의 동년들을 깨뜨리고 새로운 발전상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오도된 백수의 의미 그대로의 백수가 계속적으로 양산된다면 우리 사회는 그 시점에서 종말을 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싫으면 싫다고 말할 줄 아는 것이 백수 정신"

된 '백수'의 의미 그대로의 백수가 계속적으로 양산된다면 우리 사회는 그 시점에서 종말을 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오도된 '백수'의 의미를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백수는 노동 기회의 박탈로부터 혹은 원치 않는 노동에 대한 혐오의 직접적인 표현으로부터 비롯되거나, 노동과 또다른 노동 사이 혹은 학기와 학기 사이의 휴지기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존재 방식일 수 있다. 물론 시대의 영원한 백수, 게으름뱅이와 몽상가들도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백수는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성공'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백수정신은 백수들의 사회, 경제, 심리, 문화적 조건에 의해 그 기초가 마련되었지만 '게으름뱅이', '몽상가'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자기부정의 과정 속에서만 존재한다. 백수정신은 모든 사회의 동년들을 깨뜨리고 새로운 발전상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백수정신에 대한 견해에 대해 퇴행적 이데올로기의 반영이라는 비난도, 나르시시즘의 원형이라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싫으면 싫다고 말할 줄 아는 것이 백수정신인 것이다. 언제나 부정적 백수로 전락할 위험 속에서 잠시나마 백수 상태에 머물며 차분하게 상상력의 자양분을 보충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면 백수 상태 나름대로 충분히 긍정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백수는 이 시대의 급작적 초월자일 뿐이다. 백수를 단지 비참한 존재로만 파악하고 그들의 비극을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이상에만 안주하는 인간상'일 뿐이라고 간단히 치부해 버리는 것은 정제되어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에 불과하다.

자신의 존재를 통해 현실사회의 모순적 모습을 폭로하고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백수상이다.

이상 없는 인간은 이미 죽은 인간과도 같다.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도 자신만의 자유로운 꿈을 간직하고 보수에 대항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사회부적응자란 칭호는 누가 부여하는 것인가?

우리가 '백수'를 비난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우리의 꿈을 잃고 보수성에 타협하는 모습은 아닌지 한 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사회의 백수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꿈, 사회발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밑바닥 인생을 수용하며 사회의 숨은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 글을 읽고도 자신이 백수라고 부끄러워하는 자는 '백수'의 자격이 없다.

그러한 이는 자신을 '백수'라 칭하지 말라.

(김용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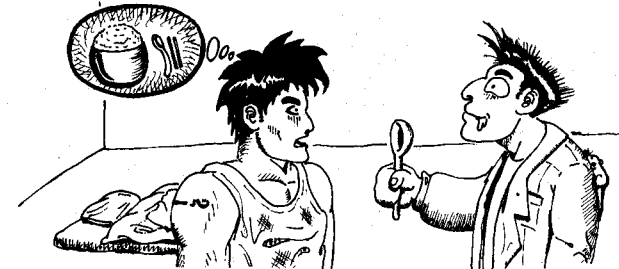
세상이 만들어가는 '백수'

전쟁백수·정치백수·

구조백수등 시대별로 다양

전달은 '이름 건 하늘 달, 하늘에 이른다'는 뜻이지' 영화 '남비3' 대사의 일부분이 향간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루에 방바닥과 등바닥이 최소한 20시간 이상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백수전달. 이 낱말의 현재의미와 과거의미는 어떻게 다르고 그러한 의미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지금의 백수는 어떤 의미로 통하는지.

백수라는 낱말을 15C와 17C의 고사전에서는 찾을 수 없다. 단지 그 때의 생활상을 반영하여 추론할 수밖에. 이 이유는 백수전달이라는 말이 일종의 은어, 속어로 여겨져 사전에까지 기록되는 영광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단지 이 단어가 의미하는 '흰 손'의 의미는 '손 안에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이 허황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변질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다.

또한 백수라는 단어의 의미를 넓게 보면 역사의 산물이 라고도 할 수 있다. 60년대에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파생된 백수. 그리고 70-80년대에는 정치적인 백수가 등장한다. 이른바 운동권이라고 불리는 다수의 학생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취업도 못한 채 거리를 헤매야만 했던 그 때. 이어 90년대에는 구조적 백수가 등장한다. 소위 실업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국가경제의 호황, 불황에 따라 그들의 삶의 척도가 달라진 것이다. 그 중 현재의 IMF하에서 파생된 백수는 세번재의 경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이 문제시되어 실직하는 경우가 아닌 단지 구조적인 모순에 의한 일터 상실.

이처럼 백수의 존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호황 불황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에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유토피아가 도래하지 않는 한, 백수의 등장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최현일 기자)

□인터뷰—멀티프리랜서 서영(27)씨

프리랜서는 '자유'롭지 않다

"창의적 노력 없는

프리랜서의

꿈은 환상일뿐..."



서영씨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 외국서적을 번역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거나 이벤트 기획을 담당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멀티프리랜서겠조"라는 그의 말. 직장이란 정형화된 틀에 얽매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는 일은 자신의 적성에 잘 맞지 않았다고 한다. 직장을 자주 옮겨다니던 편이기에 정식직원으로 근무한 적은 단 두번. 그 외엔 일정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고정적인 일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한번에 서너가지 일을 하다가도 몇달씩 실직 상태로 있는 때도 있다. 그런 때는 다음에 맡길될 무언가의 일을 대비하며 틈틈히 책을 번역하거나 인간관계로 두텁게 한다.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백수란 말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백수라는 말이 스스로를 가리킬 땐 괜찮지만, 남들에게서 듣고 싶지는 않은 말이 아니잖아."

갈수록 많은 젊은이들이 프리랜서의 꿈을 갖는다. 자유롭게 내키는 대로 일한다는 것, 구속받지 않아서 요즘 세대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영씨는 아무 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바로 프리랜서로 들어가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고 한다. 관련회사 등에서 일을 한 후 전문직종으로 나가는 것이 일을 맡기도 수월하고, 적응하는 데도 빠르다는 것이다. 더욱이 관심분야나 전공에 대한 창의적인 노력이 없으면 프리랜서의 꿈은 환상일뿐이라고 말한다.

현재의 경제불황 때문에 뜻하지 않게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선 길이 열리지 않는다. 자신이 종사해온 분야나 그 과정에서 알게된 인맥을 잘 살펴보면, 어딘가 출구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의 조심스런 견해였다.

(최홍섭 기자)

□백수의 애국애족

· 백수는 애국가를 하루에 3번이상 듣는다.

□백수의 일반상식

· 백수는 주위 사람의 생일 및 결혼식을 모두 기억한다.

· 백수는 동네 아줌마들과 친해야 한다.

· 백수는 신문의 부고란까지 모두 정독한다.

· 백수는 동네에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백수가 회의를 느낄때

· 동료백수가 백수생활을 그만둘 때 배신감...

· 동네 아줌마들이 아이를 보살피고 할때...

· 식구들이 출근하며 집안일을 할때 어머니 마저...

· 만화가에게 그 많은 만화책 중에 안본게 없을 때.

□백수가 자부심을 느낄때

· 오락실의 모든기계에 하이스코어를 세겼을 때

· 사업하던 친구가 부도 나서 피해를 때

· TV 퀴즈 프로를 보다가 모르는게 없을 때

□백수의 일반법칙

· 백수는 빌려볼만한 비디오 테이프가 없다.

· 백수는 지하철에서 항상 에스컬레이터만 이용한다.

· 백수는 시선을 오래두지 않는다.

· 백수는 백수시리즈에 공감한다. 그러나 많은 백수는 돈이 없어 못본다.

[참고] <http://ino-te.com/~astear/story/chan.html>

백수 이야기